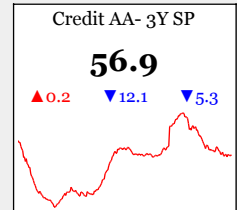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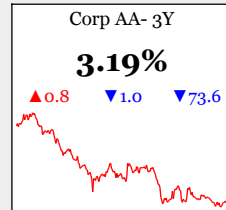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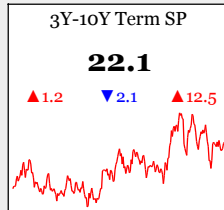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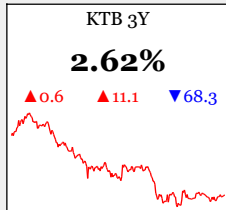


AICraft Korea Bond Market Dai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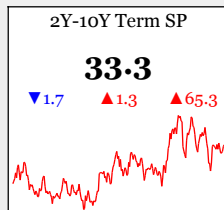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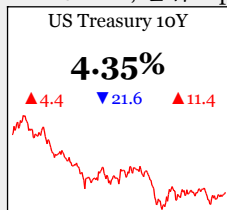
March 27, 2025

[주요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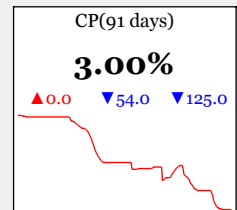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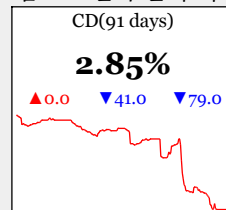
국채수익률 (DoD / YTD / YoY, 단위: bp)



미국국채수익률 (DoD / YTD / YoY, 단위: bp)



참고 - 한국 단기 시장



(Source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https://ecos.bok.or.kr>) 및 세인트루이스 연준 | Federal Reserve Economic Data (FRED) (<https://fred.stlouisfed.org>))

[시장 동향]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낮으나,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한 심리적 부진과 실물경제 둔화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다. 1분기 미국 GDP는 관세 인상 우려에 따른 수입 증가와 순수출 감소, 소비 기여도 약화로 전기대비 연율 0% 수준이 예상된다. 미 10년 금리는 4.3%를 중심으로 박스권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의 소비자 가격 전가 능력이 달려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소비자 가격 민감도가 높아짐에 따라 관세 비용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가격 인상은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은 가계대출 증가와 환율 변동성, 추경 불확실성 등으로 금리 추가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국고채 커브 스티프닝 가능성 또한 제한적입니다.

[주요 경제 뉴스 및 이벤트]

미국 주요 News

2월 내구재 주문은 전월비 0.9%로 예상치(-1.0%)를 상회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관세 영향이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수입 자동차 25% 관세 부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미 국채 금리는 내구재 주문 증가와 매파적 발언으로 상승했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은 4.35%(+3.9bp)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동차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해외에서 조립된 미국 브랜드 자동차도 포함됩니다. 이는 4월 2일에 발표될 상호 관세율에 더해지는 조치입니다. 애틀랜타 연준 GDPNow는 미국의 1분기 성장률 추정치를 -1.8%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요 News

3월 17일부터 7영업일 연속 국고3년 금리가 작년말 증가(2.596%)를 상회하고 있으며, 국고10년 금리는 작년말 증가(2.855%)에 2.2bp 근접한 상황입니다. 야당 대표의 2심 무죄 판결 이후 추경 편성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국고채 3년물은 2.62%(+0.6bp), 10년물은 2.84%(+1.8bp) 상승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 및 환율 변동성으로 인해 금통위의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한 스탠스가 확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경 규모 및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 또한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News 및 Event

애틀랜타 연은 보고서는 2020~23년과 2016~19년(미-중 무역 분쟁 당시)을 비교 분석하여 업종별 수입 의존도와 물가 상승률의 정비례 관계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미 의회예산처(CBO)는 부채한도 변경 없이 정부가 특별 조치를 통해 차입할 수 있는 능력이 2025년 8월이나 9월에 고갈될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습니다.

[대응 전략]

미국채 10년물 분할 매수 전략을 권고하며, 4.26%를 적정 레벨로 제시합니다. 국내에서는 원화 채권 듀레이션 확대 의견을 유지합니다. 단기적인 국채 공급 확대에 대한 경계심은 유지하되, 낮은 성장 우려와 국내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 추세를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는 추가 금리 인하 기대를 유지합니다.

Disclaimer - 본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부터 얻어진 것이지만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증권이나 금융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거나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서에 표현된 의견은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 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의 책임이며, 필요에 따라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